

34년 오직 한 길 빅토리 바디샵 벨플라워 플러튼 세리토스 롱비치 다운니 늘워

LIFETIME WARRANTY! 최대 시설/ 최고 서비스/ 저렴한 가격



- ✓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(562)920-9745~6 17441 Clark Ave, Bellflower, CA 90706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오픈 특가 \$7.00/LB

aci store

한국택배/ 24H 메일박스 오픈 (부에나팍 사거리)

- *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/ 항공-해운 물류서비스
- *전자상거래-배대지-3자물류대행-한국역직구대행-전세계택배
- *개인소화물-귀국이사-미국내 화물/이삿짐 운송-수입수출통관

T.714.735.9277 www.aciexpress.net
www.shippingtohome.com



[어떤 기도]

다섯 살 먹은 톨이가 자기 방에서 집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다. 하느님, 자전거를 주세요!
엄마가 타이른다. 톨이야, 하느님은 조그만 소리로 기도해도 알아들으셔.
"알아요. 엄마, 이 기도는 아빠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."

[아내와 어머니의 차이]

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무시무시한 밤이었다. 거리에는 나다니는 사람이 없었다. 그래서 빵 가게도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잔뜩 움크리고 가게로 들어왔다. 뒤집혀버린 우산을 든 그는 스웨터 두 발에 두툼한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. 그런데도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.
"베이글 두 개 포장해 주세요."
"베이글 단 두 개요?"
가게주인이 이런 낯씨에 나타난 그를 보고서 놀라면서 물었다.
"그래요, 하나는 내가 먹고 또 하나는 세리가 먹을 거거든요."
"세리가 부인이신가요?"
"맞아요. 우리 어머니라면 이런 낯씨에 심부름 시키시겠어요?"

[유머로 보는 혈액형]

-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부재중에 왔을 때

A형: 친구들한테 물어본다.
B형: 야, 너 누구야? 전화 건다.
O형: 문자 날린다.

AB형: 웬지 기분 나쁘다. 그래도 전화는 건다.

- 고백 받았을 때

A형: 응? 뭐라고? 못 들은 척.
B형: 네가 날 좋아해?
O형: 아..... 진짜?
AB형: 내가 어디가 좋아?

- 싫어하는 애가 친한 척할 때

A형: "어, 그래?" 하며 조금 차가워진다.
B형: 저리로 가서 놀아라. 줌.
O형: (일단 놀아주는 척한 다음에) 아이씨, 재 뭐야?
AB형: 된다.

- 성적이 무척 못 나왔을 때

A형: 울진 않지만 짜증낸다.
B형: 찢는다.
O형: (아무 말 없이 좌절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) 헐, 됐어 괜찮아.
AB형: 엄마한테 변명할 거릴 만든다.

[철수와 순자와 부자]

철수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순자에게 드디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프러포즈를 했다.
"순자씨! 저는 순자씨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모하고 또 사모해 왔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제 친구 성글남 만수처럼 잘생기지도 못했고, 부자도 아니고, 그 친구처럼 별장이나 외제승용차도 없습니다. 그러나 순자씨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그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지

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! 부디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시오!"

철수의 고백을 듣고 있던 순자가 철수를 내려다보며 속삭이듯이 말했다.
"정녕 저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..... 그 만수라는 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!"

엄청난 내상을 입은 철수는 굴지의 부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.

"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요?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."
그러자 부자가 철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.
"그건 아주 쉽다네. 오줌을 눌 때에 한쪽 다리를 들면 되네."
"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죠? 그건 개들이나 하는 짓이 아닙니까?"
그러자 잠시 침묵하던 부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.
"바로 그거라네. 어느 부자가 사람다운 짓을 해서 돈 벌었다던가?"

[힐러리와 클린턴]

힐러리와 클린턴이 함께 운전하고 가다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렀다.
그런데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가 힐러리의 동창이었다. 이를 본 클린턴이 한마디 한다.
"당신이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주유소 직원의 아내가 되어 있겠구려."
그러자 힐러리는 당당하게 대답했다.
"아니요,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겠지요."

Kim's Handyman 리모델링전문



**페인트/ 부엌
화장실/ 마루
타일/ 캐비닛
윈도우/ 지붕수리
전기/ 플러밍
각종 리모델링**

작은일도 합니다!

**Kim's Handyman
562.833.0766**

Home Remodeling